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평강과 기쁨이 없이, 교회 사역 자체에만 몰두해 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1. 살롬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 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 함께 모인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모인 곳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때, 예수님은 그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이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살롬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곧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을 때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롬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 하다보면 사역과 임무 자체에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은 중요하며, 이는 선교적 교회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 이전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사역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이며, 예수님이 주시는 살롬과 기쁨이 충만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2. 평강을 나누기 위해 보냄 받은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은 선교적 교회의 뼈대가 되는 성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세상으로 보냄 받은 교회를 특징짓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은 매우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갔듯, 타락 이후의 인간은 스스로 평강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보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로 인해 사라진 평강을 이 땅에 충만히 회복시키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서신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과 배반을 꾸짖는 대신 오히려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두 팔을 벌려 사랑의 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끌어 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살롬은 예수 안에서 먼저 그것을 맛보며 누리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공동체만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부름 받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공동체이자, 이제 그 평강을 나누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이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